

YWAM 재언약의 문서들

편집: 달린 커닝햄, 데이빗 해밀턴

(2020년 9월)

YWAM이 세워진 후, 첫 60년 동안 여섯 번, 우리는 여러 번의 중요한 순간들을 경험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재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찾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은 언약으로 작성하였고, 주님께서 적용의 범위와 의미를 지속해서 보여주시도록 공식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언약은 우리가 부르심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선교 운동을 탄생하게 한 우리의 기반이 되는 파도의 비전(유업의 말 #1)을 품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반영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 아마도 헌신을 새롭게하는 재언약을 계속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차세대를 섬기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은 YWAM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며 의도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함**(하나님을 알자)과 **영향력**(하나님을 알리자)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로 소망한다.

마닐라 언약의 배경

1988년 8월 1,500명이 넘는 YWAMer들이 국제 간사 리더 컨퍼런스를 위해 마닐라에 모였다. 그 행사가 끝날 즈음, 그들은 20개의 약속이 담긴 이 언약에 서명했다. 그것은 이 획기적인 행사에 걸맞은 마지막 순서였는데, 이는 플로이드 맥클랑이 촉구했고, YWAM 차세대 리더들이 이끈 최초의 행사였다.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젊은이들, 여성들, 제3세계 출신의 사람들을 선교 리더십 가운데 풀어주는 것에 대한 칼라피 모랄라의 메시지와 20세기 말까지 우리의 3분의 2가 선교 대상지로 여기는,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역 출신이 되도록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선교 안에서 모든 영역의 전 지구적 포함을 위해, 즉 배가하는 대학으로서 전에 사용하던 태평양 아시아 대학(Pacific and Asia University)이라는 이름을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이 언약은 젊은이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했다. "우리는 우리 선교 단체에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젊은이를 동원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이 언약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일어나는 일과 세계를 변화시킬 젊고 활기 넘치는 이들이 우리 단체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이 언약은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간사와 리더로 모든 나라를 대표한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더 많은 선교의 규제들을 혁신적으로 풀어 주었다.

이 문서는 또한 모두(all)와 전부(every)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했다. "전도, 훈련, 구제 사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완수를 위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9개의 개척지들'의 범위에 놓인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도전한다. 우리가 복음의 양면적 접근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이는 '개인 전도와 공화 사역을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선언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과 행동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언약은 기독교 대헌장의 모든 부분을 성취하도록 하는 전체적(holistic) 부르심의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마닐라 언약
1988년 8월 4일

마닐라 언약은 YWAM의 리더십이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1988년 8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리더십 회의에서 국제 간사 1,500명이 확정한 선교 성명서이다. 협약의 20개 조항은 YWAM의 원칙과 소명, 가치를 표명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흥분되는 도전에 여러분을 초청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선교 단체로서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복음전도, 훈련, 구제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예수님의 소명을 기뻐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서로의 관계에 새롭게 위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청년들을 동원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소명임을 선언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동원되어 젊고 활기찬 정신으로 세계 변화의 주역이 되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언약에 명시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에게 최우선으로 복음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무슬림권, 불교권, 공산주의권, 힌두교권, 전 세계의 절반을 이루는 25세 미만 청년층,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도시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미전도 종족들의 9개 미전도 영역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더 많이 동원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한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개인의 삶, 국가, 가정, 교회, 교육, 전자 매체와 인쇄 매체, 예술과 오락, 스포츠, 상업, 과학과 기술, 정부와 정치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것과 같이 동일한 영을 통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YWAM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단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간사와 리더십은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유럽, 북아메리카 출신의 모든 인종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말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복음전도뿐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좋은 소식을 선포함과 동시에 긍휼을 베풀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해야 하며 가부장주의, 편견, 성공주의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즉시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구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류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우리 단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하길 원하신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추구하며 리더십 스타일과 태도에 책임과 복종이 있어야 함을 확신한다. 우리는 신입 간사가 적절한 문화적 훈련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적합한 훈련을 일정 기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부흥시키고 도우셔서 모든 훈련생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격려 받고 준비되고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겸손, 깨어짐, 경건함, 투명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 하나 됨의 원리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위탁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단체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성격의 약점이나 문화적 장애를 다루고 극복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각기 다른 교단의 신학과 서로 다른 공동체의 배경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서로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기 위해 경건한 상담, 지혜, 가르침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을 주셔서 지역 교회를 세우고 배가시키는 데 사용되며, 지역 교회와 지상 대명령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기도와 중보사역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계속 우리 마음을 일으키셔서 열방을 위한 중보사역을 쉬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한다. 또한 기도를 통해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향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헛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최선도 헛되기 때문에 기도하며 선교하도록 부르셨다고 믿는다. 동시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들도 필요함을 선포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YWAM 전체와 작고 다양한 베이스, 사역, 팀, 학교 간의 관계가 투명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 섬기는 사람들, 주 안에서 우리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간에 서로 순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투명성은 공동체와 개인의 삶 안에 바르게 함과 격려, 정직한 나눔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확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개인의 인생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세우고 강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손님접대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에게 베이스, 가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에 헌신한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에 손님, 강사, 동료 YWAMer,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높여주고 섬기는 특권을 기쁘게 감당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재정적 책임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우리는 YWAMer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정에 대해 법률적, 영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YWAM 목적선언문)

우리는 YWAM이 국제적이며 이 세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각기 다른 교파에서 모인 공동 체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상 대명령의 임무 완수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일으키며 그들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 모였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일, 그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과 전 세계의 모든 개인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YWAM 목적 선언문에서 연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는다. 모든 사람이 범죄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버림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셨다. 우리는 회개, 믿음, 사랑, 순종의 반응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헌신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믿는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우리는 다음의 기본 권리가 복음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믿는 기독교 대헌장을 **선언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할 권리
 2. 모국어로 된 성경을 소유할 권리
 3. 크리스천 공동체가 존재하는 근방에 살 권리, 크리스천 공동체에 매주 정기적으로 참석할 권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경을 배우며 예배할 권리
 4. 자녀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할 권리
 5.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음식, 물, 옷, 집을 소유하며 건강을 관리할 권리
 6. 영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생산적이며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권리
-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선언문을 실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다.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홍해 언약의 배경

1992년 4월에 국제 간부 위원회 멤버 중 약 12명의 YWAM 리더들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 모였다. 당시에 YWAM의 무슬림 사역은 아주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로부터 일 년 전 아르헨티나 이과수 국립공원(Foz de Iguazu)에서 열린 국제 전략 컨퍼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린 그린(Lynn Green)에게 회복의 걸음(Reconciliation Work)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리고 이 회의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중동에서 개리 티싱(Gary Tissing)이 사고를 당해 한 쪽 눈의 시력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 것처럼 한 쪽 눈의 시력만 있는 톰 할라스(Tom Hallas)도 그 회의에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육체적인 필요들에 기도 모임에 온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위해 한 쪽 눈, 또한 아랍인을 위해서도 한 쪽 눈만 가지고 그곳에 모였음을 상기시켜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두 눈으로의 접근(two-eyed approach)을 위해 기도해야 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건강하고, 온전하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류로 인한 제한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문서상의 말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언약의 다른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 드러난 열매들은 새로운 선교 혁신들에 대한 증거였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 언약으로 인해 개척된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 중 하나는 30일 기도 운동(30 Days of Prayer)이다. 다른 하나는 회복의 걸음인데, 1996년에 시작된 독일 쾰른에서 예루살렘까지 1차 십자군의 경로를 되짚는 3년 코스다. 참가자들은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과 무슬림에게 저지른 잘못과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 잘못 나타낸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 유대인과 무슬림 단체들을 회복의 걸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문서에 나와 있는 "비전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 보는 것에 대한" 소명은 역사가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로서 보여줬다. 특히 우리가 충돌하는 나라들, 즉 한국과 일본, 아르메니아와 터키, 그리고 후투족과 투트시족을 대할 때 어떤 접근이 필요한 지에 대해 중동을 통해 배울 수 있음이 분명했다. 특정 민족, 나라, 언어 편에 서는 대신,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태도를 지니고, 모든 경계에 하나님의 화해와 구속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계선들은 우리를 가르고 우리의 비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홍해 언약 1992년 4월

1992년 4월, 국제 YWAM의 실행 위원회(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가 중동에서 열렸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슬림 세계에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어느 한 기도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대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하셨고, 모든 사역자들을 리더로 부르셨다는 마음을 주셔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케 하셨다. 예상치 못한 역사와 하나님의 강하고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곳에 장막을 지어야겠다'고 느낄 정도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적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을 것과 우리 마음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 때 주님께 대한 반응으로 홍해 선언문을 작성했다.

무슬림 세계를 위한 여러 번의 기도회를 갖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47장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것이 무슬림 선교의 첫걸음이라는 명확한 사인을 주셨고 주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보여 주셨다.

주님은 이사야 19장을 통해 충격을 주셨다. 그것은 마치 적어도 한 분야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정확히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기독교인들과 아랍인들,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슬림을 위해 30일간 집중적으로 금식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은 십자군 원정으로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무슬림 사역을 위해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흥해 언약에 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헌신의 표현으로 서약에 서명할 사역자들을 초청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서약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실 권능과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식, 기도, 회개와 같은 영적 훈련에 순복한다.
-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모인다.
- 우리는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여기고, 우리의 비전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우리는 폭넓은 무슬림 세계를 품으면서, 이슬람 영향권에 있는 그들을 위한 주님의 위대하신 구속 계획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권능과 전략을 구한다.
-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영향권의 종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
-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받기 위해 동원하고 그 속에서 리더십을 훈련한다. 전 세계 무슬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 * *

난닝 언약의 배경

10년 후, 2002년 8월에 국제지도자회의(Global Leadership Team, GLT)는 중국의 난닝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이 모임 이전의 행사들을 치르며 어려움이 있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1년 전에 있었던 GLT 모임에서 로렌 커닝햄은 우리 단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가치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나누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우리의 삶과 사역에 심오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 놓으신 유업으로 들어가는 것에 헌신된 선교 단체라기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의하는 법인단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열매의 풍성함은 사라지고 있었다. 선교 단체로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아니었다. 7월, '변화(Transformation)센터'를 위한 혁신 모임'의 소집으로 로렌 자택에서 열린 한 기도회에서, 그는 "우리가 (구사일생으로) 바위에 걸렸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표현은 몇십 년 전 나이아가라 강에서 거룻배를 타고 표류하던 몇몇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루는 거대한 폭포로 그들이 떠내려갈 때, 세찬 급류의 물살은 확실한 죽음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양쪽 강둑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때, 거룻배가 폭포로 몰리기 바로 직전 바위에 걸렸다! 구조대가 그 젊은이들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재난 직전의 배는 바위에 걸린 채 멈춰 있었다.

로렌은 주님께서 "YWAM이 바위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느꼈을 때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는 난닝으로 가는 길에 호주에서 3주 동안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로렌에게 '삼각대의 메시지'(Tripod Message)를 주셨다. 즉, 우리가 사도적 선교 단체로 남고자 한다면, **개인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듣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방식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개인의 자유의 상호작용과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이루는 것에 헌신된 **영적 장로**들의 역할과 함께하며, 모두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건강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각대 메시지" 또는 "영적 장로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난닝 모임의 문을 여는 핵심 메시지였고, 이어지는 모든 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모임에서 YWAM 가족의 사역으로부터 머시십(mercy ship)을 떠나보내는 것(우리의 가치를 재정비), 4K 사역의 도입(우리의 비전을 재정비), 존 도우슨을 YWAM의 차기 총재로 선택(우리의 관계 재정비) 하는 일도 있었다. 그 모임의 결과로 만들어진 언약은 우리의 파도 환상에서 나온 기본 초기 언약의 두 가지 주제를 강력하게 강조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선교의 새로운 사도적 기름부음에 대한 부르심이었다. 이는 우리가 사도적 개척의 새로운 돌진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적 혁신에 대한 간절한 외침 가운데 젊은이들을 옹호하는 우리의 핵심적인 헌신을 선언했다. 갓 들어온 YWAMer부터 가장 오래된 YWAMer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도록 격려할 것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충만함 안에 모든 이가 자유롭게 풀어지도록 지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언약에서는 모든 영역에 대한 부르심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강조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한 곳에 가는 것에 초점을 둔 4K를 포함했을 뿐 아니라 이 언약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 이곳을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오늘 하나님께 선언한다.

난닝 언약

YWAM Global Leadership Team Declaration, 30 August 2002, Nanning, China

우리는 놀라운 땅 중국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있다. 예수님의 주권을 새롭게 인정하고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나라로 부르신 YWAM의 소명을 재인식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성령님을 구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본 정신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위탁하며 YWAM의 비전으로 주신 전도, 훈련, 구제사역에도 재헌신한다.

우리는 4k프로젝트의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사도적 개혁정신의 새로운 파도가 일어나는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YWAM에 속한 자는 경력이 많은, 신입이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파송한다.

우리는 개인의 사역과 공동의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GLT의 영적 지도력을 존중하며, GLT에 속한 장로격 지도자들을 존중한다. 우리는 투명한 관계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지표와 다림줄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역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신앙 선배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재헌신한다. 우리를 의지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섬긴다.

우리는 리더를 섬기기로 헌신한다. 새로운 비전 혹은 방향 전환, 핵심 리더십 임명, 원칙 및 사역 흐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순복하며 신뢰, 연합, 사랑, 평강의 정신으로 리더를 지지하며 격려한다. 이는 YWAM이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풍성히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다. 21세기에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어디 서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모든 것과 최상의 나를 동원하여 지금 이곳을 포함하여 어디로든지 갈 것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Signed this day 30 August 2002, Nanning, China.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 * *

희년 언약의 배경

이 언약은 3만 명 이상의 YWAMer들과 동역자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언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스위스, 우크라이나에서 동시에 열린 열방대학 워크샵에서 50주년 1년 전에 소개되었다. 그것은 로렌과 달린 커넝힘이 2010년에 전 세계에서 열린 44개의 50주년 희년 “가족 상봉” 행사의 주요 요소였다. 우리의 이전 언약 문서보다 본질적으로 더 개별적이고 헌신적이지만, 이 성명은 희망과 전진적인 추진력을 표현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의도적인 재정비 노력의 결과다.

선교적 혁신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이 전 세계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이와 같은 때에 그분의 부르심에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명히 표현된 인식을 통해 나타난다.

모두(all)와 전부(every)에 대한 주제는 개회 선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복음에 의해 모든 개인은 구속되고 모든 사회는 변화되어야 한다." 마지막 헌신의 약속에서도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라는 표현 또한 이 주제를 강조한다.

희년 언약
2010 - Celebrating 50 Years of YWAM

나는 YWAM이 5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영이 전 세계 안에 놀랍게 역사하심을 본다.

나는 각 나라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견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나의 몫을 다 하기를 열망한다.

나는 '이 시대'에 살면서 부르심 입은 것을 특권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헌신한다.

1.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헌신한다. (막 12:30-31)
2. 미래를 포함한 내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헌신한다. (마 6:25-34)
3.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그 이유로 사람을 섬기기로 헌신한다. (요 21:15-17)
4.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헌신한다. (막 8:34-35)
5. 이 세대 안에 지상 명령이 완수되기까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헌신한다.(막 16:15)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합2:14)." 이것을 나의 삶에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서약한다.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 * *

싱가폴 언약의 배경

싱가폴 언약은 65개국에서 참가한 400명의 YWAM 리더들이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파도를 타라"는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제정되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의 목적은 현재의 역사 속에서 YWAM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침묵 기도를 하면서 선교 단체로서의 미래를 주님이 직접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출 33:15)였다.

싱가폴 언약은 과거의 언약적인 말에 대한 재헌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할 것을 새로이 헌신하는 것으로써 싱가포르 게더링이 마칠 때 서명한 것이다.

싱가폴 언약 2014년 9월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65개국에서 온 400여 명의 YWAMer들이 싱가포르에 모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예수님, 우리는 개인 및 공동체에서 지속적이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길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은 아버지임을 선언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므로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저희를 이끄시고 동행해 주십시오(출 33:15-16).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어설픈 우리의 방식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옷사가 법궤에 손을 댄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삼하 6:1-8).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잠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문화, 다세대로 이루어진 국제적 가족의 정체성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YWAM의 존재는 주님의 꿈에 우리를 포함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1956년 6월 바하마에서 로렌을 만나주신 이후에 시작된 YWAM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파도의 비전은 운명이며, 언약임을 확신합니다. 로렌의 그 간증을 기억합니다. 로렌은 말했습니다. "그때 세계지도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도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륙이 보였고 파도가 해변에 부서졌습니다. 파도는 각 대륙을 향해 덮치더니 물러났고 그다음엔 더 크게 일어나더니 대륙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파도는 젊은 청년들로 변했는데 우리 친자녀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구상의 대륙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골목 어귀에서, 술집 앞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모여와서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환상은 갑자기 시작되었듯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로렌이 받았던 언약의 비전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본다.

1. 첫째, "청년"이다. 그 당시에는 선교와 청년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지하며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도울 것을 재헌신한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모든 세대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한다. 성령 안에서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위한 신선한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력 없는 자들의 헌신을 드리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것을 개척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창조사역의 조력자로서 작은 자, 나중된 자, 앓은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 변화되도록 할 것이다.

2. 둘째, "파도"이다. 파도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전에 일어났던 파도에 이어 그 다음 것이 몰려오며 더 넓고 더 커진다. 이러한 파도는 각 대륙에서 일어나 모든 대륙을 향해 나아갔다. 모두 동참하며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대명령의 모든 것에 헌신한다. 우리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벗어나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떠나며, 하나님의 전략으로 지구상의 각 사람과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가기로 헌신한다.

성령님,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친절함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었고 신실하셨습니다. 우리 단체의 변화의 시기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비전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에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재헌신하곤 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몇 번의 재서약 성명을 공표하는 동안 우리 단체를 향하신 본래 목적을 재확인

시켜 주셨고, 선교의 혁신과 각 나라와 백성을 향해 부르신 지상 대명령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역사에 허락하신 재헌신을 위한 다음의 4언약을 견고히 하는데 헌신합니다.

- 1988년 마닐라 언약
- 1992년 홍해 언약
- 2002년 난닝 언약
- 2010년 희년 언약

위의 4 언약은 파도의 비전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선교의 사명도 새롭게 했다. 세 번째 언약까지는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마지막 희년 언약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향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언약을 작성한 지 12년이 흘렀다. 난닝 언약을 작성할 당시, 우리는 본래 목적과 가치로부터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선교 단체로서의 기능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보다는 "사울의 갑옷"을 입었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지배 구조를 가진 정부와 기업 정신을 닮아가고 있었다.

로렌이 난닝에서 나누어 준 "삼각대 메시지"는 사도적 선교운동에 집중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고 그러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1. 공동 창조사역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개인의 자유
2. 선교적 사명에 앞장서는 영적 장로직의 헌신
3. 건강한 사랑의 관계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재정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성실히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말씀을 통해 "이정표"를 보여 주셨습니다.

장로직이란 조직을 지켜야 하는 직임이 아니라 주님을 보좌에 모시는 자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장로직을 맡은 자들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부여주십니다. 우리는 "통치하심이 주의 어깨에 놓였음을(사 9:6)" 기억하며,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벽돌로 쌓는 탑이 아니라 돌로 쌓는 제단(창 11)"이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송축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서두르지 않으며 기다립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연합의 영을 기경하고, 양자의 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 훈련, 구제 사역으로 부르신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하나의 사역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주께 순종하며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변화 두 가지를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목적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기독교 대헌장과 7가지 사회 영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 범위는 파도의 비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지상대명령의 모든 족속과 온 땅을 포함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4k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리를 벗어나 개척할 곳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서로 돌보고 연합하고 섬기고 세울 때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YWAM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재헌신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자의 구원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단체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며 우리의 존재로 인해 부르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부르신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 * *

성경 빈곤 퇴치 언약의 배경

성경 빈곤 퇴치 언약(A Covenant to End Bible Poverty)은 1967년 로렌이 멕시코에서 빛바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났을 때 시작했다(유업의 말 #4 참조). 그때 하나님은 로렌에게 YWAMer들이 성경을 나눠주는 비전을 주셨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말씀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일에 다양한 국가의 YWAMer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속히 달리는 것을 보기 위한 이 열정은(시편 147:15) 세기가 바뀌는 무렵에 SIL의 존 워터스(John Waters) 박사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성경 빈곤을 뿌리 뽑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더 불타올랐다. 200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UofN 워크샵에서 로렌은 2020년까지 전 세계의 각 가정에 모국어로 된 성경을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 처음에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성경 빈곤 퇴치를 위한 이 부르심은 YWAM의 50주년인 2010년에 35개국 44곳에서 열린 로렌과 달린의 기념일 행사의 가장 큰 주제였다. 하나님께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번 로렌에게 성경 빈곤을 끝낼 것을 말씀하셨다. 이번에 그는 (가톨릭 교황, 콥트 정교회 교황, 그리고 캔터베리 성공회의 주교를 포함하여)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10명을 만나도록 이끄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 그는 YWAMer들과 팀을 결성해 열흘 동안 3개 대륙 4개국을 다녀왔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사도적 여행의 풍성한 교제로 인해 성경 빈곤 퇴치 언약(End Bible Poverty Covenant)을 만들게 되었고, YWAM과 그 외의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졌다.

성경 빈곤 퇴치 언약 2014

우리는 함께 다음을 선언한다: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

-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시 19:7-11).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우리는 다음 조항을 깨닫는다:

-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 주님은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한(삼상 3:1)” 시대와 상황을 슬퍼하신다. 이는 언어, 교육, 경제, 종교, 정치적인 장벽의 이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수백만의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엡 2:12)”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잃은 자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마18:12)”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엡 5:1)”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으며 “그 자취를 따라오게(벧전2:21)”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골 4:12)”함을 알고 있다.
-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딤후 2:4)”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누구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변화의 삶을 경험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던(행 17:11)” 베뢰아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열망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딤후 4:13)”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또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 1:23)”고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하여 다음 조항을 이뤄가기를 약속한다.

- **번역:**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완성한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시 147:15)”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성경 번역에 박차를 가하기로 헌신한다. 지구상에는 현재 약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 우리는 2020년 초기까지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로 번역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2033년이 되면 95%의 세계 인구가 모국어 성경을, 4%가 신약성경을, 나머지 1%가 적어도 25장 이상의 성경을 손에 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출판:** 우리는 모든 종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각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준비한다. 출판 및 디지털 기능을 활용하여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듣고 볼 수 있는 오디오·비디오 성경을 개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기술 발달로 다양한 취향과 학습 방식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친화자 학습자나 친구두 학습자 모두 성경을 친숙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바울의 태도에서 배운 것이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 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20-22)”
- **배포:** 성경을 국제적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들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전해지기를 원한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합 2:14)”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한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라” 는 명령을 받았으며(마 28:18-20, 막 16:15), “세상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행 1:8).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델이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
-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사29:11-12)”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교육수준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근절시킬 것에 헌신한다.
- **동기부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경 사역에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부여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골 3:16 참고)”고 우리를 독려한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7:24).” 우리의 소망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에 연결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삶이 자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한다.

Signature 서명

Date 날짜

© 2020 by Youth With A Mission (a California, USA corporation, established 1961: “YWAM’s Covenant Renewal Documents.”

Translation: Steve Donguk Kang
 Planning Department, UofN juju
 18 Sep 2020